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 예선 탈락 8월 단양대회 우승 재도전

이환희 기자 hwanhee515@khu.ac.kr

지난 1일, 배구부가 한국대학배구연맹 주최 ‘전국대학배구 고성대회’를 1승 3패로 마쳤다. 인하대, 홍익대, 조선대, 중부대와 함께 A조에 배정된 우리학교는 조 2위 안에 들지 못해 예선 탈락했다.

배구부는 첫 경기부터 고전했다. 조선대와의 첫 경기에서 세트스코어 1-3으로 패배했고 홍익대와는 마지막 세트까지 가는 접전 끝에 패배했다. 이후 인하대에 경기를 넘겨주며 예선 탈락이 확정됐다.

염시원(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는 “대회를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얻어온 것도 있다”며 “팀원에게 힘들더라도 더 힘내서 훈련에 임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곧 열리는 단양대회에서 우승하면 좋겠지만, 4강 진출이 1차 목표”라며 “차근차근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0일부터 ‘전국대학배구 단양대회’가 열린다. U-리그 플레이오프 진출이 좌절된 배구부가 올해 우승에 도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고성대회와 마찬가지로 조별예선을 치른 뒤, 각 조의 상위 2개 대

학이 4강에 진출한다. 배구부는 성균관대, 명지대, 조선대, 경상국립대, 중부대와 함께 B조에서 예선을 치른다.

부상에서 돌아온 정송윤(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의 목표는 우승이다. “U-리그 인하대전 부상 이후 운동을 좀 쉬었는데, 이제 몸이 많이 올라왔다”며 “고성대회를 치르며 조금 더 집중하면 모든 팀을 이길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한 “단양대회로 2025 시즌이 끝나는데, 프로 드래프트에 나가는 형들과의 마지막 대회인 만큼 우승으로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다”고 말했다.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 금5개 포함 메달 10개 싹쓸이

김민영 기자 myk5060@khu.ac.kr

도은오 기자 eunohdo@khu.ac.kr

【국제】양궁부가 지난 24일부터 29일까지 열린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리커브 대학부 남자 단체전 2연패, 혼성 단체전 3연패를 비롯해 개인전에서도 많은 메달을 휩쓸며 대회를 빛냈다.

지난 29일 열린 남자 대학부 단체전 결승에서 김예찬(스포츠지도학 2023), 김동현(스포츠지도학 2024), 이효범(스포츠지도학 2024), 최두희(스포츠지도학 2022) 선수가 계명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5-4 점진 끝에 우승을 차지했다. 경기는 쏠오프 끝에 26-24로 승리를 거두며 대회 2연패를 달성했다.

같은 날 열린 혼성 단체전 결승에서는 이효범 선수와 염혜정(스포츠지도학 2023) 선수가 국립경북대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5-1(38-35, 38-38, 38-37)의 완승을 거두며 혼성 단체전 3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염혜정 선수는 지난 대회에서 김예찬 선수와 호흡을 맞춰 혼성 단체전 금메달을 차지한 바 있다.

한편, 여자 대학부 단체전에서도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염혜정, 장미(스포츠지도학 2023), 김미강(스포츠지도학 2025) 선수가 한 팀으로 출전해 동메달을 획득하며 팀워크를 빛냈다.

개인전에서도 우리 선수들의 활약은 이어졌다. 여자 대학부 50m에서는 김세연 선수가 대회 타이 기록인 347점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염혜정 선수는 60m 금메달, 70m 동메달을 각각 차지하며 대회 2관왕

에 올랐다.

남자 대학부 30m 종목에서는 김동현 선수가 358점으로 금메달을, 이효범 선수가 357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이어 50m 경기에서는 최두희 선수가 은메달, 이효범 선수가 동메달을 추가해 종합적인 기량을 입증했다.

50m 금메달을 획득한 김세연 선수는 “사실 자신 있는 종목이 아니고, 시합 전 화살이 제대로 맞지 않아 마음이 복잡했지만, 경기가 잘 풀려서 기뻐다”며 소감을 전했다.

염혜정 선수는 “단체전 3위 이후 혼성 결승에서 마지막 화살로 1등이 확정된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며 “스스로에게 만족스럽지 않은 성적이라 더 열심히 연습할 것이고 앞으로 대표팀 1군에 자리를 차지하고 싶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동현 선수는 “30m 경기에서 마지막 한 발을 남기고 순위권에 있다는 걸 알았을 때, 잠시 어떻게 쏘아할지 고민했던 순간이 기억에 남는다”며 “열심히 훈련해 대표팀에 승선하고 싶다”고 밝혔다.

양궁부 최희라 감독은 “모든 선수들이 무더운 날씨와 심리적인 압박 속에서도 최고의 집중력과 기량을 발휘해 뛰어난 성과를 거둔 것”이라며 “연패라는 부담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실력을 발휘해 준 선수들에게 지도자로서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고 전했다. 이어 “다가오는 전국체육대회와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목표로 실전 감각을 높이기 위해 기량을 끌어올리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좋은 결과로 실력을 증명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각오를 다졌다.



우리학교 양궁부가 '제43회 대통령기 전국남녀양궁대회'에서 많은 메달을 차지했다. 왼쪽부터 김세연(스포츠지도학 2022), 김동현(스포츠지도학 2024), 염혜정(스포츠지도학 2023)선수. (사진=도은오 기자)

2025년도 2학기 학생예비군 전입신청 안내

- 기간** : 2025. 07. 15(화) ~ 2025. 07. 24(목)
대학기본훈련 일정 : 11.17(월)~11.25(화) 총7일(부대 여건상 기간,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대상** : 학사, 석사, 석·박사 통합, 박사과정의 신·편입, 복학생, 이전 학기 신청 누락자
- 신청방법**
가. PC화면 : 대학생활 - 온라인 신청/연구 - 예비군전입신청
나. 모바일 화면 : 경희대학교통합앱(신규) : Service - 예비군전입신청
※ 예비군 전입 신청(저장) 후 이어서 복학 신청 진행
- 유의사항**
가. 신청서 작성 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훈련 면제 대상자는 방문 서류 작성 바랍니다.
나. 개강일 이후 전역자는 전공학과 행정실에 복학 승인 여부를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다. **민방위대원, 복무완료자**는 전입신청이 불필요하므로 예비군연대로 문의 바랍니다.
라. **수업연한 초과자, 수료자, 유급자, 석사과정 이상 논문과제 등록자, 직장예비군에 소속된 자**는 전입이 불가합니다.
마. 학생예비군 신청 시 연1회 기본훈련 8시간 부과 혜택이 주어집니다.
1) 학생예비군 : 【1~6년차】기본훈련 8시간(연1회)
2) 일반예비군 : 【1~4년차】동원훈련 I 형(舊 동원훈련) 28시간 또는 동원훈련 II 형(舊 동미참훈련) 32시간 【5~6년차】기본훈련 8시간, 작계훈련 12시간(전·후반기 각 6시간)
바. **병무청으로부터 “동원훈련 I 형(舊 동원훈련) 부과받은 학생”**들은 예비군연대로 문의 바랍니다.
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전화상담 또는 첨부파일 “자주하는 질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홈페이지 이용 안내**
QR을 접속 후 훈련일정 자율선택, 훈련연기, 전국단위/휴일예비군훈련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곳** : 네오르네상스관 1층(115호) ☎ 02-961-0148~9

(서울)경희대학교예비군연대

